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부모 간담회 개최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학과 비전과 교육 과정 등을 소개하는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별 학과 차원에서 신입생 학부모를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 참여한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호텔경영학과 교수진은 전주대 지역혁신관 호텔아카데미룸에서 열린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과 비전 및 교육과정, 수업방식, 취업지도 등 학과에서의 대학 생활 전반을 소개했다.

이어 해외 취업 프로그램 및 영어 트랙 개설 등 학과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신입생의 대학과 학과 생활 적응을 위해 학부모와 교수진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학부모를 위한 호텔경영학과 단복방'도 개설했다.

단복방에는 간담회에 참가하지 못한 신입생 학부모를 위해 호텔경영학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올려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심영국 교수는 "우리 호텔경영학과에 소중한 자녀들을 보내줘 감사하고, 부모님들과 항상 교육 진로 취업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지난 2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현장 면접을 추진해 6명이 취업하는 등 지난 2022학년도에 만 40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48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정은성 기자



비전대, 사회문제 해결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대행 우병훈)는 최근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다양한 분야의 개발도상국 또는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스스로 모색해 보는 프로젝트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세계시민에 앞장서 가지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빈곤 불평등, 환경 기후변화, 보건, 차별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10점 출품, 대상은 식수 부족 문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디어를 출품한 응급구조학과 '구해조' 팀이 수상했다.

김미선 사업단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SDGs 이행의 핵심 주체자인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부터 고민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트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은 국내 대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KOICA와 ODA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정은성 기자

농협 진안군지부,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변성섭)는 오는 8일 치러질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3일 진안고원 전통시장 및 터미널 일대에서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관내 농축협 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전통시장 및 터미널을 찾은 지역민들에게 전단지 나눠주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며,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불법 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했다.

변성섭 지부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주민과 조합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합동 캠페인 활동을 통해 불법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인사

- 농촌진흥청** ◇고우영무원 전보 ▲윤동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지원부장
- 새만금개발청** ◇국경급 승진 ▲이명민 개발전략국장
- 농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기노선 부사장 겸 기획이사 ▲권오영 수출식품이사

“지역민들에 감사·영광 돌리고 싶어”

양영환 전주시의회 의원, 2023 K-STAR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수상

'2023 K-STAR 한국을 빛낸 사람들' 시상식에서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지역사회복지활성화공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4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K-STAR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시상식은 언론인연합회회 등 21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작됐다. 특히 국가 발전과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한 인물 중 양영환 의원이 선정되어 시상에 오른 것이다.

그동안 양 의원은 관내 지역민 위한 민원처리 및 독거노인 아동보호, 환경재미 등 수많은 지역 살림꾼으로 앞장서 있는 의원이다.

여기에 양 의원은 탁월한 봉사정신을 발휘해 늘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감사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가이기도 하다.

더불어 양 의원은 관내 어린 유아들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두루두루 관심을 보이며 역량을 집중해 삶의 지킴이에 선봉사라는 보기도 의원 역활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영환 의원은 의정-행정-의회-공직-통일-교육 부문에서 장애인 복지와 보편 복지 등 지역 시민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 구현에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사회복지활성화공로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양 영환 전주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아 감회가 새롭다. 자랑 할것없는 내게 큰상을 주 감사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진만 했다.

앞으로 보디나는 지역민 삶을 만들고 이끌기위해 시간시간 최선을 다한 나의 모습속에 열중하겠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태 기자



순창군, 2022년 안전한국훈련 국무총리 표창 수상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시군구 공공기관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규모 재난을 가상한 국가재난대비 종합훈련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가상으로 설정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 점검 등 지진 및 화재 대비 능력 강화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훈련에는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부서와 10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훈련 돌발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 능력이 높게 평가되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이 2022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은 평소 지진, 집중호우, 폭염 등 재난상황에 대해 군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제일주의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후 위기시대의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훈련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순창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고향나들이 신청자 모집

남원시에서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와 경제적 부담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 방문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남원시는 다문화가족에게 행복한 가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부터 75세에 230명의 다문화가족에게 고향나들이를 지원해 왔다.

선정기준은 남원시 2년 이상 거주자로 최근 2년간 모국방문이 없는 가정,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으로, 가정형편, 모국방문 횟수, 거주기간, 자녀수, 가족센터 이용횟수 등의 우대조건 등을 종합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가정을 우선순위로 하나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평가에 따라 선정한다. 선정된 가정은 1가정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왕복항공료, 여행정보료, 공항 왕복 교통비 등을 지원받고



4월부터 12월까지 자유롭게 고향에 다녀올 예정이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남원시가족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620-6207)와 남원시 가족센터(635-547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우 기자

고창군, 곳곳서 지진피해·이웃돕기 성금 기탁 줄이어

고창군 곳곳에서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회장 오근호)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 구호와 복구지원을 위해 성금 150만 원을 기부했다.

아이보리농조합법인(대표 이현정)에서도 지진피해를 위해 성금 100만원, 한전엠씨에스(주)고창지점(대표 정성진)가 20만원을 기부하며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냈다.

또 강선마을회(회장 방세혁)에서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분위기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군 4H연합회(회장 이상환)는 백미 500kg(150만원 상당)을 기탁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직접 상품을 전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나눔이 큰 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성금에 희망을 더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 부안군지부,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홍보 전개

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는 6일 부안천연의송씨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종석)과 함께 오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은 농협부안군지부와 부안천연의송씨조합법인 임직원 등이 준법선거 구현, 부정선거 근절, 금품선거 OUT, 공명선거 실천의 피켓을 들고 홍보 전단지 배부하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김삼형 지부장은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가 부정과 금품이 오가지 않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경찰청, 조각가 임민택 작가 작품전·감사장 전달

전북경찰청 무궁화아트홀에는 '여백(餘白)', 자연의 섭리를 입체에 담다! 조각가 임민택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오는 31일까지 열리고 있다.

임 작가의 전시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6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초대작가인 임민택 작가는 중국 북경 중앙 미술학원 본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박사를 수료한 인물이다.

임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다수 수상경력과 사천국 조각협회 전북지부 이사 전라북도 조각협회 부회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바이옌진흥원, 김제 대표기업과 함께 현장간담회

전북바이옌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옌진흥원)은 지난 3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김제지역 농생명식품 대표기업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참체 등으로 위축된 기업현장을 찾아 다양한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지역 농생명·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시 관내 12개 대표기업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 전북도 이지형 농생명식품과장과 함께 마련된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되는 농식품 시장상황 속에서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바이옌진흥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또 시군 지역 식품기업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인한 신규고용 및 고용 유지의 어려움과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 등 인력공급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전북도와 바이옌진흥원이 적극 협력해 해결방안을 찾기로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은 "기업의 애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지속되어야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준은 기자



신천지예수교, 해외 15개국 280개교 말씀 배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전해 받은 해외 15개국 280개 교회와 2개 기관을 '신천지예수교회'로 바꿔달고 말씀 교육을 받는다.

최근 필리핀, 인도,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테말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서 교회 기관에 신천지예수교회 교단명을 넣고 교육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밝혔다.

이는 올 1월 마다가스카르 교단의 남부지부 대표단은 마다가스카르 신천지예수교회를 방문해 "교단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마음이 전혀 없다. 영혼에 상처 입은 성도들과 교회를 다시 살리고 싶다"며 교회명 교체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기관을 교체한 인도의 한 목회자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도 이 곳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기관을 교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